

지하철역사의 정다운 문화공간

성남시 분당 '백궁' 역의 간이도서관

지하철역을 정답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 참한 코스모스가 몇 대 흔들리고, 가을 햇빛에 바랜 푸른 지붕을 인 시골역사라면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의 소요를 이는 사람에게 도시의 지하철역이란 얼른 지나쳐버리고 싶은 장소다. 뭐든 새 것이어서 번쩍거리고 썰렁하기만 한 신도시의 지하철역이라면 더 그렇다.

비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가로운 시간

하지만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역장 박용철)에 가본 사람은 그곳에서 비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시간이 정지된 듯 고요하게 독서를 하는 사람들, 편안해 보이는 소파에 앉아 두런거리는 노인들의 한가로운 시간을 만난다. 낯선 광경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면 1천여권의 장서가 꽂혀 있는 작은 독서공간이 보인다.

지난 94년 9월 1일 개통한 백궁역이 달라진 것은 올 3월부터. 연초마다 의례적으로 다짐하는 “밝고 깨끗하고 친절함 서비스”를 간이도서관으로 실천해보자는 말이 나왔다. 모두 4명 뿐인 역무원들은 집에 있는 헌 책 가운데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20~30권씩 가져왔다. 그렇게 모은 책 70여권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버린 물건 가운데 쓸 만한 것들을 주워다가 고치고 닦아서 책상과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한가운데 놓인 동그란 탁자는 테이블 감는 통의 뚜껑을 떼어 만들었고, 책꽂

성남시 분당구의 백궁역에는 비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낯선 광경이 있다. 고요하게 독서를 하거나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전시공간을 둘러보기도 한다. 70권으로 시작한 백궁역의 간이도서관은 이제 4천여권을 갖췄다.



지하철 역에 간이도서관을 만들어 작은 문화공간을 이룬 백궁역.

이는 모두 중고가구를 수리한 것이라고 박용철 역장(51)은 말한다.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자 여러 사람들이 물건과 책을 내놓았다. 아침 출근길에 책을 한 권 빌려간 사람은 저녁 퇴근길에 두 권을 갖다 놓고, 물건을 가져다 쓰라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 왔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 없어지는 책도 있고, 화분이나 작은 그림도 집어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도서관이 제법 규모를 갖추게 되자 그런 일은 사라졌다. 비로소 백궁역 간이도서관이 시민들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70권으로 시작한 백궁역 간이도서관은 이

제 4천여권을 갖췄다. 책의 종류도 다양하다. 어린이 명랑소설, 월간으로 나오는 만화잡지, 국내 문학전집과 사상전집이 있는가 하면 랑송의 《불문학사》, 민석홍 교수의 《서양사 개론》이 있다. 베스트셀러였던 이우혁의 《퇴마록》,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있다. 얼마 전에는 정음사 문고 3,000권이 한꺼번에 들어와 문고판 책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공동재산

“문고판 책장을 양면에서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칸막이 역할을 해 명실상부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역사를 구석구석 활용해 만든 전시공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증기기관

차 부품 주물, 통표(通標) 등 전시물을 중심으로 철도 소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남문화원 같은 지역단체와 연계해 특별전시회장이나 알뜰장터로도 활용하려 한다.

백궁역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2천명,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간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하루종일 100명을 넘지 못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저녁이면 인근의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책도 읽고, 역사 안에 마련한 전시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흐뭇하다.

도시의 지하철역이 기억할 만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는 것, 지하철역사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 이현주 기자

Harlequin Books

SNOOPY

BLONDIE

Nancy

love is...

beetle bailey

프로그림시계

본사는 문고 출판의 선두주자로서 연간 150여 종의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 앞으로 보다 넓은 출판 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본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성실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 모집부분 및 응모자격

모집부분	응모자격	모집인원	제출서류	제출기한 /기타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 2년 이상인 대졸자 외국 번역물 편집가능자 학력 : 대졸 PC사용자 영어, 일어 능통한 자 우대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필이력서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상세한 경력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기한(우편접수) 1997년 10월 20일까지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제출처 : 110-704 서울특별시 중로구 관훈동 198-42 관훈빌딩 8층 (주)신영미디어 총무부/전화문의 720-1408~9

사원모집

SY (주)신영미디어
SHIN YOUNG MEDIA SERVICE, INC.